빛과 감동을 찾아나선 제주

『제19회 전국연극제』

김 순 자 | 제민일보 기자

‘21세기 빛, 감동을 찾아서’란 슬로건을 내건 『제19회 전국연극제』가 지난 5월 24일 오후 5시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막되어 6월 9일 시상식을 끝으로 17일 동안 제주도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김정옥)과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최종원)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도지사 우근민)와 제주도연극협회(회장 강영철)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전국연극제는 지난 1992년에 이어 제주에서 두번째 마련된 지역 연극잔치다.

이번 연극제는 시·도 예선전을 통해 선발한 15개 지역 대표 극단들이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하루 두 차례(오후 4시·오후 7시)씩 번갈아가며 그 동안 갈고 닦은 연기 대결을 벌였다.

이번 연극제의 영예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연인무대의 <돼지사냥>이 차지해 대통령상과 트로피, 상금 2천만원 그리고 오는 10월 서울공연예술제에 공식 초청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대상을 받은 <돼지사냥>은 현대 사회의 욕망의 문제를 코믹하게 그려낸 작품으로 무대는 어느 군 어느 면 서부리‘생돼지고기식육식당’마을이다.

서부리 사람들은 대부분‘생돼지고기식육식당’을 운영하고, 이 마을에 사는 돼지할매는 종자돈 한 마리를 가지고 접붙이기로 생계를 유지한다. 어느 날 이 종자돈이 우리를 탈출하자 할머니는 현상금 20만원을 내건다. 한편 돼지할매의 막내아들인‘돼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절도범이 교도소를 탈출한다. 신창원사건으로 혼이 난 경찰은 이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하면서‘탈옥범돼지’의 연고지인 서부리에 비밀 수사관을 파견,‘탈옥범돼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진짜 돼지’를 찾는 마을 사람들과‘사람돼지’를 잡으려는 수사관들의 오해와 오해가 엇갈린다. 서부리에선‘본조서부리생돼지고기식육식당’주인과‘원조서부리생돼지고기식육식당’주인의 원조싸움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두 식당 주인이 군의원에 출마하게 되고, 이들은 서로 상대방의 추문을 조작하고, 모략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면서 경쟁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중심 축으로 하고 있다.

연출자 한전기는 수상 소감에서“똑같은 모습을 되풀이해서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은 인간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마치 거울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작품이 지닌 사회풍자극으로



1 개막식에서 우근민 지사가 환영사를 읽고 있다
2 전국 연극제 시상식 장면
3 극단 현장 <오이디푸스왕의 여행>

서 주제가 선명하고, 빠른 템포로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게 교직(交織)했고, 연기자들간의 호흡이 잘 맞고 앙상블의 조성이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금상은 기지촌 출신 칠수와 홀어머니와 어려운 삶을 꾸리던 만수가 각기 불우환경을 벗어나기 위해 춘천으로 올라와 같은 곳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다 뜻하지 않은 일로 투신자살하는 사건으로 오인, 결국 매스컴 등의 엉뚱한 질문에 뜻하지 않게 투신자살 한다는 이야기를 그린 강원극단 연극사회(대표 홍기동)의 <칠수와 만수>(행정자치부장관상)와 신이 내린 저주를 받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눈을 찔러버린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그린 경남 극단 현장(대표 정대균)의 <오이디푸스와의 여행>(문화관광부장관상)에 돌아가 상금 1천만원과 상장과 트로피가 주어졌다.

은상은 청주시연극연합(회장 진운성)의 <언덕 위의 빨간 벽돌집>(제주도지사상), 전북 극단 ᄒᆞ늘 대표 조승철)의 <부자유친>(한국문화예술진흥원상), 제주극협(회장 강영철)의 <바이칼호로의 여행>(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 경기 연극마을(대표 조현건)의 <유랑극단>(제주시장상)이 차지해 상금 5백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개인상인 희곡상(제주도지사상)은 극단 울산 <장승들의 귀로>의 박용하가 받았고, 연출상(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은 대구 극단 연인무대의 한전기가, 최우수연기상은 대구 극단 연인무대의 이성민이 각각 차지했다. 또 강원 연극사회 양홍주, 경남 극단 현장 윤덕현, 충북 청주시연극협회연합 정인숙, 전북 극단 ᄒᆞ늘 소종호, 대구 극단 예사랑 한선희가 각각 연기상(한국연극협회 이사장상)을, 경남 극단 현장 최태문이 미술상(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지회장상)을 받았다. 개인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원씩이 주어졌다. 연출상과 최우수연기상 수상자에게는 해외시찰비로 3백만원이 덤으로 전달됐다.

이번 연극제에도 지난 18회 연극제에 이어 '사랑티켓'제도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하루 평균 1천명씩, 1만6천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아 침체된 제주 연극의 활력을 찾음은 물론 연극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결과는 제주도연극협회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청과 칠성로, 제주대 일대에서 '전국연극제 보러갑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벌인 홍보이벤트 덕분이다.

그러나 이번 연극제에 출품된 15개 작품 가

운데 초연작이 2개 작품(제주극협의 <바이칼호로의 여행>, 극단 울산의 <장승들의 귀로>)에 불과했다는 점은 지역 연극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아쉬웠다. 또 15편의 작품 가운데 2편을 제외하고 스모그를 이용하는 등 작품내용에 상관없이 무대장식에 치중한 경향이 짙어 지역연극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함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심사위원장 차범석(극작가 ·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은 " 연극은 종합예술로서 여러 가지 형태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뤄야 하고, 긴장과 이완이 연극의 생리인데 이번 연극제 출품작들은 이런 점이 부족했다 "고 평가했다.

차 위원장은 또 " 형식면에서는 발전은 있었으나 작품 면에서 주제와 연출의도가 희박하고, 기초훈련(화술)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연출은 연극 본연의 앙상블 조성과 연극미의 구축보다는 연극 외적인 요소(조명 · 음향 · 의상 · 음악)에 의존함으로써 기성 연극의 모방에 급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면서 " 지역 연극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할 연극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심사는 차범석 위원장 외에 장민호(배우 · 전 국립극단 단장), 강영걸(연출자 · 전 극단 민예 대표), 서정용(한국예술인총연합제주도지회 회장), 강한근(연출자 · 극단 정낭 대표)이 맡았다.

이번 연극제에는 개막 축하공연으로 민족예술단 우금치의 <쪽빛 황혼>과 칠머리당굿보존회의 <영감놀이>가 펼쳐져 행사분위기를 돋웠고, 관객과 함께하는 즉석노래 마당, 관악앙상블, 마임, 저글링 등 열린무대가 문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베풀어져 볼거리를 제공했다.

이와함께 한국희곡작가협회(회장 김대현) 주관으로 지난 5월 26일 제주도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 제21회 창작희곡세미나 ' 지역 연극의 활성화 방안 '가 열려 행사의 의미를 더해줬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희곡작가협회 곽노홍 · 김영무 부회장, 장일홍 한국희곡작가협회 제주도지회장, 희곡작가 김흥우, 전국연극인협의회 오청원 운영위원 등은 이날 세미나에서 지역연극이 ' 서울아류 '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지역창작 희곡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국연극제 경연 참가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일홍 씨는 " 지역연극이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연극행위와 직업이 연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면서 " 연극인들이 연극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시 · 도립 극단 창설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1


2

1. 대상수상작 대구대표 극단 연인무대 <돼지사냥>
2. 금상수상작 강원대표 극단 연극사회 <칠수와 만수>

오청원 씨는 " 전국연극제가 지역연극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체성을 가진 지역 작가의 신작 희곡 선정과 선정된 대표팀에 예산 지원 등 전국연극제 운영 개선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5월 24일부터 6월 8일까지 문예회관 2층 이동전시실에서는 15개 시 · 도 대표 미술인과 사진가가 참가하는 사진전과 미술전이, 연극제가 열리는 대극장 로비에선 <제주연극사 자료전>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한편 제20회 전국연극제는 2002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년 전주 연극제는 이번 연극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해 전국 각 처의 지역문화를 담보할 수 있는 ' 좋은 작품 ' 이 많이 출품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제19회 전국연극제』 심사평

이 글은 6월 9일 『제19회 전국연극제 』시상식에서 발표한 차범석 심사위원장의 심사평을 전재한 것입니다.

" 연극은 관객을 위한 예술입니다 "

차범석 | 『제19회 전국연극제』 심사위원장 / 극작가 · 예술원회장

안녕하십니까. 차범석입니다.

전국연극제가 시작된지 19년! 1년이 모자랍니다만 성년이 된 셈입니다. 저는 19년 전에 했던 첫번째 연극제를 회상하며 여러분들이 하신 연극을 보고 있노라니까, 이제 성년이 되었구나…, 동시에 연극제가 하나의 경영혁신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못했는지 평가를 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을 심사평이라고 해야 하나, 그저 앞으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몇가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극제 심사에는 기본 방침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연극은 흔히 종합예술이라고 합니다. 종합예술은 여러가지 형태의 예술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조화라는 것은 다른 말로 긴장과 이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되느냐 안되는냐가 연극의 생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노리는 것은 여러가지 다른 악기, 여러가지 다른 목소리가 모여서 하모니를 이뤄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전달하는 상황, 그 ' 앙상블 입니다. 좋은 연극은 하나의 앙상블이 잘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달렸습니다.

두번째, 연극은 뭐니뭐니해도 마음의 소립니다.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서 한마디도 안했다고 칩시다. 연극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이른바 판토마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연극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고 말속에 담긴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무대 밖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외면 당하고 문화예술은 지방에는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